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생명샘 장로교회 2026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일 예배 2026년 4월 12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김현경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만유의 주재 / 찬송가 32(신) 48(구)

\*성서 교육 / 성서 교육문 22번 (시편 37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이 세상 험하고 / 찬송가 263(신) 197(구)

기도 / 조창 집사

성경 봉독 / 사도행전 13장 38-41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우리는 어떠한가 / 박화신 목사

찬송 / 부활하신 구세주 / 찬송가 162(신) 151(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 다같이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바울은 주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도입니다. 그의 사역을 면밀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갖다 줄 것입니다
2. 약 1년간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11:26) 그리고 얼마가 더 지났는지는 모르겠으나 후에 두 사람은 선교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13:3).
3. 13장에 나타나는 바울의 본격적인 설교는 죄사함이라는 은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13:26).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의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13:23,27,29,33,34,35),
4. 우리에게 부려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복음

사도행전 13장은 “누가 일을 시작하느냐”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계획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보내십니다. 교회는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 신앙은 내가 뭔가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안 되던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기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 복음은 모두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냈는데,

그 결과는 실패가 아니라 복음이 더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 막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 넓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과 성령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 생 명 샘 소 식

1. 생명샘 장로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2026년 교회 표어를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로 합니다.  
복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말씀, 교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는 사도행전 성경공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이번 금요일 14장 공부합니다).
5. 4월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목장 / 4월 25일 토요일    파라과이 목장 / 4월 18일 토요일
6. 목자 모임을 4월 14일 화요일 저녁 8시에 갖습니다.

## 4월 예배 위원

안 내	박래석	김정신			
기 도	한미숙(5)	조창(12)	박승화(19)	한광기(26)	

##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상황은 결코 평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쁨은 잘 풀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쫓겨나도 낙심이 아니라 충만함이 남고,  
거절 속에서도 사명의 방향은 더 분명해집니다.